



**임선영 첫골** 광주 FC의 미드필더 임선영(가운데)이 24일 부산 아시안드경기장에서 열린 부산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9분 선제골을 넣고 있다. <광주 FC 제공>

## 광주 '비빔밥 축구' 매운맛

### 부산 2-1 꺾고 K리그 초반 2위 ... '돌풍' 넘어 '태풍'으로

광주 FC의 겹없는 질주가 계속됐다. 광주 FC는 24일 부산 아시안드 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2012 K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주앙 파울로로의 역전골로 2-1 재역전승을 거뒀다. 4경기 무패행진으로 승점 10점(3승1무)을 채우며 2위에 올랐다. 4라운드 경기의 변수였던 임선영이 선제골의 주인공이 됐다. 앞선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이승기를 대신해 선발로 나선 임선영이 전반 9분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골키퍼가 오른쪽에서 김수범의 패스를 받은 임선영이 수비수를 따돌리고 오른발 슈팅을 날렸

다. 부산 골키퍼 이범영이 몸을 날렸지만 골망이 흔들리면서 임선영의 프로데뷔 첫 골이 완성됐다. 전반 중반 이후 부산의 공격에 물이 올랐지만 수비수들이 침착하게 상대의 공세를 막아냈다. 전반 38분에는 부산 임상협과 파크너가 연속해서 슈팅을 날리며 광주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전반 43분 부산 박종우의 중거리 슈팅이 아슬하게 광주 골대를 비껴나면서 전반전이 1-0으로 마무리됐다. 후반 6분 최강희를 빼고 유지훈을 투입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에 나선 부산의 작전이 성공했다. 후반 7분 프리킥 찬스에서 임상협이 박종우가 왼쪽에서 길게 올려준 공을 받아 헤딩골을 넣으면서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 13분 최만희 감독이 '조커' 주앙파울로 카드를 꺼내면서 잠잠하던 광주의 공격에 불이 붙었다. 후반 20분 복이가 미드필더 진영에서 뺏은 공을 주앙파울로에게 밀어주었다. 빠른 스피드로 상대 진영으로 치고 오르던 주앙파울로는 4명의 수비수가 에워싸자 한 템포 빠르게 중거리 슛을 쏘며 승부를 뒤집었다. 최만희 감독은 "흠이든 원정 경기이든 열정적으로 경기를 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처음부터 부산을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 하지만 주앙파울로로의 골로 승리를 이뤘다"며 "한 경기 한 경기를 결승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겠다. 8강에 드는 게 목표다. 우리의 경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주앙파울로, 유종현·복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골 세리머니

### 광주의 힘은 끈끈한 동료애

광주의 '동료애'가 또 다른 드라마를 썼다. 광주 FC의 부산행 버스에는 전력의 핵심 이승기가 없었다. 제주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 왼발목을 접질렀던 이승기는 상태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원정 명단에 제외됐다. 이승기의 부재는 24일 부산과의 4라운드를 앞둔 최만희 감독의 고민이었다. 지난 시즌 20경기를 소화하며 부쩍 자란 임선영도 발목이 좋지 않았던 탓에 필승 전략을 짜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임선영은 발목에 테이핑을 한 채 그라운드 에 올랐고, 전반 9분 복이에게 슈팅으로 부산의 골문을 가르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위기 상황에서 나온 천금같은 골은 임선영의 프로데뷔 골이기도 했다. 임선영은 "복사빠를 다쳐서 아직 통증이 있지만 괜찮다. 골을 넣고 나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정신이 없었다. 기분이 좋다"며 "경기 전에 동료들이 '네가 골을 넣을 것 같다'고 격려를 많이 해줬다. 그 얘기에 나도 괜히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기뻐했다. 부상투혼을 한 임선영은 "원래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그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이다. 감독님께서 경기 전에 활발하게 움직이라고 주문하셨다. 지금 내가 골을 넣는다는 것은 건방진 것이다. 팀 승리를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선영의 골로 시작된 광주의 4번째 드라마는 주앙 파울로로의 환상적인 슛과 함께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됐다. 팀에 완벽하게 녹아든 복이가 용병 복이의 활발한



광주 공격수 주앙파울로(가운데)가 부산전에서 환상적인 결승골을 쏘아올린 뒤 팀 최장신인 복이(오른쪽), 유종현과 어깨동무 골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움직임, 주앙파울로로의 스피드와 천부적인 골감각이 만들어낸 그림같은 역전골이었다. 끈끈한 동료애와 분위기에 반해 광주를 선택한 두 선수는 한발 더 뛰고 또 한대 어울리며 끈끈한 광주의 팀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이날 골 세리모니에서도 잘 나가는 광주의 흥분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결승골의 주인공이자 팀 최장신(170cm) 주앙파울로는 K리그 최장신(201cm) 복이와 지난 시즌까지 팀 최장신이었던 수비수 유종현(195cm)과 어깨동무를 하며 재미있는 세리모니를 선보였다. 두 장신 선수의 어깨를 빌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주앙파울로로의 넉넉한 웃음은 광주 질주의 이유를 말해주었다. /부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불펜 핵 한기주·심동섭 실전피칭 '굿'

#### KIA, 연습경기 두산에 0-3 패배

KIA 불펜의 핵심 한기주와 심동섭이 돌아왔다. KIA 타이거즈가 2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타선의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0-3으로 패배를 기록했다.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불펜의 주요 전력인 한기주와 심동섭이 나란히 출격하면서 KIA 마운드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상에서 탈출한 한기주는 서재응에 이어 6회 등판해 올 시즌 첫 실전피칭을 소화했다. 첫 타자 이종욱을 2루수 앞 땅볼로 잡은 한기주는 최후판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김현수와 김동주를 상대로 땅볼을 유도하면서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 했다. 직구 최고구속은 140km를 기록했다.

한기주는 "직구와 슬라이더, 투심을 던졌는데 밸런스는 나쁘지 않았다. 스피드가 아닌 밸런스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금은 준비단계다. 천천히 페이스를 올리겠다. 올 시즌 불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첫 등판 소감을 밝혔다. 지난 23일 롯데와의 사직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른 심동섭은 7회를 책임졌다. 이원석을 헛스윙 삼진으로 요리한 심동섭은 국해성과 손시현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심동섭은 앞선 롯데전에서도 4명의 타자를 상대해 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공격적인 피칭으로 선동열 감독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심동섭은 "첫 등판 때는 마운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차분하게 내 공을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기주

## 와인&시네마열차 운행(새마을호당일)

새마을호를 개조해서 만든 '와인, 시네마 열차'로 와인 무제한 제공과 와인강좌, 추억의 7080음악과 함께하는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최신개봉영화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차상품.

**3월25일(일), 3월31일(토)**  
**09:20 광주역 출발**  
 직지사 관광/24가지의 산채정식/와인코리아 견학

**1인당 ₩110,000** 원

※기차여행은 각역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화이트 와인, 레드드라이, 레드스위트, 복분자 와인, 와인네가지 무제한 제공 **최신개봉영화 상영!**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선유여행	해외여행
1박2일 <b>홍도/흑산도</b> ₩169,000원~	2일 <b>대마도 크루즈</b> ₩239,000원~
2박3일 <b>울릉도/독도</b> 5월 3일, 17일 ₩365,000원~ 5월 11일, 25일 ₩385,000원~	5일 <b>후쿠오카 크루즈</b> ₩580,000원~
1박2일 <b>한라산등반·올레길 블루나래호</b> ₩120,000원~	5일 <b>태항산/태산 KE</b> ₩990,000원~
1박2일 <b>제주도 블루나래호</b> ₩140,000원~	6일 <b>태항산 위동혜리(매주목)</b> ₩650,000원~
2박3일 <b>제주도 블루나래호</b> ₩160,000원~	4일 <b>청도 위동혜리(매주토)</b> ₩330,000원~
1박2일 <b>보길도/청산도</b> ₩160,000원~	5일 <b>청도/장보고유적지 위동혜리(매주목)</b> ₩450,000원~
	5일 <b>청도/태산/곡부 위동혜리(매주화)</b> ₩460,000원~
	5일 <b>장가계 MU</b> ₩1,200,000원~
	4일 <b>장가계 MU</b> ₩1,100,000원~
	4일 <b>황산 MU</b> ₩670,000원~